

< 더 깊은 묵상 >

답은 무엇인가

수학과 교수가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분필을 들고 숫자 세 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셋을 더하면 14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수열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올 수는 16입니다.”

역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64입니다.”

교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가능한 답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쉽게 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수가 학생들을 돌아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찾는 일에만 골똘하느라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째서 칠판에 적힌 숫자를 보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문제를 알지 못하니 답을 찾아낼 도리가 없죠.”

출처 -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이야기 131가지/유재덕